

04 채용신이 남긴 초상화



실명씨상

失名氏像

채용신

1919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87.5x57.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채용신피 초상

蔡龍臣筆 肖像

채용신

1923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01x57.7cm

국립중앙박물관



무명초상

無名肖像

채용신

1935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06x48cm

전북도립미술관



화가 채용신은 특별하다

- 一. 무관 출신의 양반임에도 직업적 화가로 활동하였다.
- 二.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 三.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 四. 공방을 운영하며 초상화 주문제작, 그리고 광고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 五. 사진을 참고하거나 사진만 받아 초상화를 제작했고, 아들 내외가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

TEL. 063-454-7870

FAX.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전시총괄

김중규

전시기획

이경원 박형제

전시진행

이은영 정의진 이상우 노영미

고보연 배수정 이 호 김봄이

CHAE YONG SHIN
PORTRAIT EXHIBITION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

마음을 그려내다
채용신
石芝 蔡龍臣
초상화전

2019.12.18.~ 2020.02.28.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3층



전시를 열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을 계승한 마지막 화가 채용신의 초상화를 군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신은 무과에 급제하여 첨절제사, 도호부사, 군수에 임명되면서 가선대부(종2품)에 오른 양반 출신이며 왕실의 주관 화사로 두 차례 발탁되어 어진을 모사하였습니다. 이후 초상화 전문화가로 활동하며 사대부, 의병장, 부부초상, 여인초상, 미인도 등 신분과 성별의 구분 없이 많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채용신은 그의 90년 평생 중 40여 년을 전북과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1905년 일제의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자 1906년 20년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고 선대가 살아오던 전라도 전주 우북면(현 익산 왕궁면)에 낙향하여 전업 화가로 그림을 그리면서 면암 최익현과 전북 옥구 출신 돈헌 임병찬, 간재 전우 등과 교류하며 우국지사들의 초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채용신이 남긴 '초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북 출신의 유학자 초상화와 신윤복의 <미인도> 영향을 받은 조선의 <팔도미인도> 병풍,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전통적 화법畫法과 채용신만의 극세밀한 필법筆法을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 12.
군산시장 강임준

CHAE YONG SHIN
PORTRAIT EXHIBITION

01 전북에서 만난 사람들



황종윤 초상

黃鍾允 肖像

채용신
1911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23×73.5cm
국립전주박물관



김영구 초상

金榮九 肖像

채용신
1914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47×75cm
국립전주박물관



김근배 초상

金根培 肖像

채용신
1920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12.5×65cm
전주역사박물관



박해창 초상

朴海昌 肖像

채용신
1928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10×63.4cm
원광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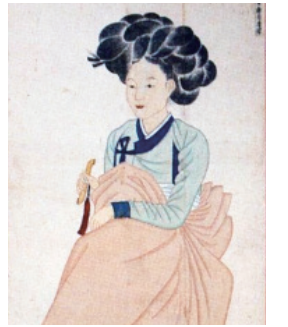
02 화폭에 담은 조선의 팔도미인도



팔도미인도

八道美人圖

전 채용신
20세기 초
종이에 색 紙本彩色
각 130.5×60cm
OCI 미술관



03 3대로 이어진 초상화가의 길



홍순학 초상

洪淳學 肖像

채용신
1920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92×63cm
개인소장



홍경하 초상

洪景夏 肖像

채상묵
1941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91×58cm
개인소장